

### 중소 살린다는 '신공공구매제' 시행 이후

# 지역중기 수주량 되레 줄었다

#### 작년보다 20~30% 감소... 경영난에 휴업위기

#### 지역 발주물량도 수도권 업체가 80% '싹쓸이'

올 초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신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주량이 급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수주물량 감소로 직원들의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해고, 심지어 경영난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단체수의계약제도 물량 3조원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이 차지하는 물량은 10%선인 3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 초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신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업체들은 지난해에 비해 20~30% 물량이 줄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IMF 버금가는 '제 2의 구조조

정 태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들고 있다.

이처럼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도입한 신공공구매제도 규정상 조달청 계약물량중 제한경쟁입찰은 20%미만으로 하고 나머지 80%는 신기술·특허 등 기술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지역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라도 수도권 대형업체가 기술인증과 경쟁력을 앞세워 '싹쓸이'해 가기 때문이다.

A조합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침체됐다고는 하나 지난해 1천억원에 육박하던 납품물량이 올 들어 200억원 가량 축소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 업체간 경쟁을 하다보니 저가입찰이 난무, 부실제품 양산

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조합을 통해 공공기관에 특정물품을 독점적으로 납품,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어렵게 됐다"며 "또 입찰자격업체 심사를 받기 위해 중기청으로부터 1년에 한번씩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B업체 대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주되는 전기공사 일부 품목의 경우 수도권 등 타지역에 있는 대형업체들이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수도권 대형업체들은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확보하기 힘든 성능인증이나 우수단체표준 등을 무기로 지역물량의 80%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지역소재 국가투자기관이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물량은 지역업체 위주로 제한경쟁입찰로 돌려주거나 소액물량의 수의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

▲단체수의계약제도=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1966년 도입됐으며, 현재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양질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해말 폐지됐고, 신공공구매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는 "중소기업정책의 큰 틀이 보호에서 경쟁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 대신 시행 중인 신공공구매제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이나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고소득 '멜론' 나갑니다** 담양군 월산면 하방리 주민들이 5일 멜론 출하에 여념이 없다. 멜론은 6~8월이 제철로 담양 하방리의 '머스멜론'은 8kg 1박스당 2만5천원에 출하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한 몫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5월 신용카드 사용액 21조원 돌파

5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21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용액을 기록했다.

5월 카드업계에 따르면 5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기업구매카드, 해외 사용분을 제외한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21조650억원으로 2006년 12월의 21조4천78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월별 신용카드 사용액이 21조원을 넘은 것도 역시 2006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과 4월 월 카드 사용액이 계속 증가하며 두 달 연속 20조원대를 넘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경기 상승세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는 12.82% 증가해 4월 카드 사용액이 작년 동기보다 16.21% 늘어났던 것보다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5월이 31일로 날짜 수가 많고 어린이날과 어머니날, 스승의 날 등 각종 지출이 많은 날이 유달리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노사정 한마음 축제 여수 산업평화 결의

최근 전남 동부지역에서 생산적 노사문화 구축과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사가 잇달아 열리는 등 노사화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이윤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노동자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노·사·정 한마음축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노·사·정은 '산업평화정착을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는 산업평화정착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순천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순천시 산업평화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대립적 노사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신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산업평화 선언을 했다.

광양지역에서도 지난달 15일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및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산업평화 실천 노사한마음대회'를 열고 노사화합을 다졌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 수완지구 풍영정천에 '아치교' 설치

#### 국내 첫 '크로스 공법' 도입

광주 수완지구를 관통하는 풍영정천에 국내 최초로 '크로스 아치리브' 공법을 도입한 아치교(조감도)가 들어선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5일 한우석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완지구 교량공사 현장에서 '아치교 설치 기념행사'를 갖고 수완지구 랜드마크 건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들어갔다.

수완지구 아치교는 길이 72m, 폭 35m 규모로, 현재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아치리브 및 케이블 설

치가 완료되는 6월말께면 외관이 갖춰지며, 오는 8월말 준공된다.

이 다리는 국내 최초로 '크로스 아치리브'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회소성이 높다는 게 토공측의 설명이다. 또 호수공원에 위치한 사당교와 함께 야간조명이 도입되며, 풍영정천 및 인근 중앙공원 등과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연출하게 된다.

토공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아치교를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는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 광주은행 민영화 길 열리나

####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분리·매각 개정법률안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앞두고 광주은행의 민영화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의원이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보유지분을 처분할 경우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선적으로 분리·매각토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정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매각 가능한 자회사를 우선 팔아 공적자금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돼 있는 광

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그룹과 분리해 매각하는 길이 열리게 돼 광주은행의 민영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역 경제계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자본 77.8%를 가지고 있는 정부는 매각시한인 내년 3월까지 보유지분 가운데 27.8%만 블록세일(일괄매각) 형태로 매각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광주은행 분리매각에 대해서는 입장 표장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 상공인들이 우리금융지주의 덩치가 워낙 커 일괄매각이 힘들다는 이유로 광주은행에 대한 분리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통술에도 '품질인증제'

#### 국세청, 품평회 개최 등 지원

국세청이 전통술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주류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산하 기관인 기술연료 연구소 부설로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 현관식을 갖고 우리 술을 살리기 위한 7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관식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환경영위위원회, 대한탁양주 제조중앙회 회장, 민속주제조협회장, 농민주 대표 등 전통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로드맵을 통해 전통술 소비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품질을 보증, 상표에 부착해 판매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 명품 주류와 경쟁할 수 있는 우

수 전통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주류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전통술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연구소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개방하고 양조기술교실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최해 기술지도와 수강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 기술진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기술자문관제 도입, 전통술의 제조비법 제조중앙회 회장, 민속주제조협회장, 농민주 대표 등 전통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과실주를 제외한 농민주와 민속주의 세율은 일반 세율에 비해 50% 감감해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민이 소규모로 생산한 과실주의 세율은 일반 과실주에 비해 50% 감감해주고 있다. /연필뉴스

**전통 침·뜸** 공개강좌

공개강좌 · 설명회  
6월 8일(금) 오후 2시

- 전문과정 연수 후 중국침구사 및 중국자격증 취득
-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주요과목: 체침(전통침), 뜸, 부항, 경혈, 경락, 두침, 미용침법, 비만침법, 피부관리, 약용식물관리, 한방기초 등

※본강의: 매주(금) 14:00~18:00 (총16주) ※광주분원: 지하철 증심사입구역 2번출구

☎ 236-3516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제주도바다**

특색 고소하고 시원한 맛! 물회 '제주도 자리돔 축제'

회, 물회, 구이

점심식사 환영! 물회: 2만원 (2~3인기준)

제주도의 명물 이제 광주에서도 맛보실수 있습니다. 자리돔은 바다고기로 6월~8월까지 제주도 근해에서 잡힌다. 특히 지방, 단백질, 칼슘이 많은 영양식이며 자리 물회는 비린내가 없고 시원하며, 구수한 맛을 내는 특징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광 받고 있다.

● 위치: 화정동 서부소방서 사거리  
● 단체예약문의: ☎(062)385-0807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렘틱  
중물량 2+2 가죽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죽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침실세트(현경장롱12자+화장대세트+침대)(4\*4렘틱)

Open기념 황트침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트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거실장식세트  
미가엘 5인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062)252-3001-2 / 금호월드점 ☎(062)350-8764